

중국, 북한 플라스틱 시장 넘본다!

흑룡강신문, 중국산 농업용 비닐 수출 급증 ... 북한 현지공장 설립도

북한이 2003년 1-10월 중국 단둥(丹東)에서 98만달러 상당의 농업용 비닐과 29만달러의 플라스틱 용기를 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.

이미 북한 지역에 현지공장을 설립하고 플라스틱 제품을 공급하는 중국기업들도 상당수 인 것으로 알려졌다.

중국 전문지 인터넷 흑룡강신문에 따르면, 북한에서 농업용 비닐과 플라스틱 수요가 늘어나면서 단둥시에서 생산된 비닐과 플라스틱제품의 북한수출 또한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북한 농업용 비닐의 40%, 플라스틱 용기의 80%를 단둥시 제품이 점유하고 있다.

단둥세관의 통계자료에 따르면, 북한이 2003년 들어 10월까지 수입한 농업용 비닐과 플라스틱 용기는 각각 98만달러와 29만달러 규모로, 전년동기대비 35%, 20% 증가한 규모이다.

북한으로부터 플라스틱 수입이 증가하자 단둥시 일부 플라스틱 공장과 중개업자들은 북한에 현지공장을 설립하고 생산품 전량을 북한 내수용으로 공급하는 등 발 빠르게 시장선점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도됐다. <조인경 기자>

<Chemical Journal 2003/11/10>